



송혜교, 이혼 후 첫 심경고백

“올해는 혼자만의 시간 필요”

탤런트 송혜교(37)가 송중기(34)와 이혼 후 심경을 처음으로 밝혔다. 송혜교는 18일 홍콩잡지 '태블러'와 인터뷰에서 “내 뜻대로 되는 일이다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럴 운명인가 그걸 운명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내 삶 속 어떤 일에도 적용되는 사실을 알았다. 별이 내게 인도해 줬기에 일어나는 것이고 타이밍이 맞았던 것이다. 운명은 큰 노력 없이 오며 그날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교는 11일 모나코에서 열린 프랑스 주얼리 브랜드 '쇼메' 행사에 참여했고 연계 홍보로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 왕관을 쓰고 싶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하다면 내 생일인 11월22일 왕관을 쓰고 싶다. 왕관을 쓸 때 공주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답했다. “올해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런 이벤트(보석 브랜드 행사)를 제외하고는 무리하지 않으려고 한다. 내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전남 서 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은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을 성립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는 “양측이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태양의 후예’를 통해 애인사이로 발전했다.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1년8개월여 만인 지난해 이혼 소식이 전해졌다.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맞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중기는 이혼을 발표하지 8일만인 이달 5일 영화 ‘승리호’ (감독 조성희) 촬영을 시작했다. 사전제작된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 파트 1·2(12부) 방송을 마쳤으며, 파트3(6부)는 9월7일부터 전파를 탄다. 영화 ‘보고타’ (감독 김성제) 출연도 검토하고 있다. 송혜교는 6일 중국 하이난의 면세점에서 화장품 브랜드 ‘설화수’ 프로모션에 참석했다. 영화 ‘안나’ (감독 이주영) 출연을 논의 중이다.

영화 ‘사자’ 57개국에서 사갔다

판타지아 국제영화제 초청도

영화 ‘사자’가 57개국에 판매됐다. 23일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북미·호주·뉴질랜드·홍콩·대만·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 등지로 수출됐다. 지난 11일 개막한 제23회 판타지아 국제영화제에도 초청받았다. 북미 지역 최대 규모의 장르 영화제다. 한국영화 중에서는 ‘마녀’ (감독 박훈정·2018)가 슈발뉴아르 경쟁부문 최고여배우상, ‘부산행’ (감독 연상호·2016)이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사자’는 폐막일인 8월1일 상영된다. 아버지를 잃은 상처를 지닌 격투기 챔피언(박서준)이 구마 사제(안성기)를 만나 강력한 악에 맞서는 이야기다. 영화 ‘안내전’ (2016) ‘청년경찰’



(2017) 등을 연출한 김주환(38) 감독의 신작이다. 박서준(31)·안성기(67)·우도환(27) 등이 출연한다. 뉴스스

탤런트 이태임, 은퇴 후에도 시련

탤런트 이태임(33)의 남편 A(45)가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11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A는 2014년 B기업 주주들에게 ‘주가 부양을 위해 시세조종을 해주겠다’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태임은 지난해 3월 소속사 매니저먼트 해임과 계약해지한 뒤 은퇴했다. 2017년부터 사업가 A와 교제했으며, 지난해 9월 출산했다. 이태임은 SNS를 통해 “여러 생각과 고통 속에

서 지난날 너무 힘들었다”며 “저는 앞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줬던 분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2008년 드라마 ‘내 인생의 황금기’로 데뷔했다. 이후 ‘천추태후’ (2009) ‘결혼해주세요’ (2010) ‘내 마음 반짝반짝’ (2015) ‘풀 위 있는 그녀’ (2017) 등에 출연했다. 2015년 MBC TV 예능볼 ‘따뜻한내기 과외하기’ 녹화 도중 그룹 ‘슈얼리’의 김예원(30)과 육살을 주고받으며 다툰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뉴스스

영화 ‘알라딘’, 개봉 61일만에 1100만명 ↑

영화 ‘알라딘’ (감독 가이 리치)이 개봉 61일 만에 1100만 관객 고지를 밟았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알라딘’은 22일 누적관객 1102만명을 기록했다. 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는 “추세대로라면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 (감독 엔서니 루소·조 루소, 2018·누적관객 1121만2710명)를 제치고 ‘어벤저스: 엔드게임’ (감독 엔터니·조 루소, 2019·누적관객 1392만7492명), ‘아바타’ (감독 제임스 캐머런·2009·누적관객 1333만8863명)에 이은 역대 외화 흥행 3위라는 대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23일



발했다. ‘알라딘’은 개봉첫날(5월23일) 7만 2736명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2위로 출발했다.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흥행 여주행을 펼쳤다. 신작들을 밀어내고 개봉 4주차에 박스오피스 1위로 올라서는 대이변극을 연출했다.

띠로 보는 오늘의 운세

- 쥐띠**
근면 성실한 태도로 현재 위치에서 전진하면 더 많은 부를 누릴 것이다. 사업에 정열을 쏟는 것도 좋지만 가정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법, 토끼띠가 울고 있다. 마음정리하고 후회 없는 길 찾을 것. 한 몸으로 돌을 끌으려 하나 역부족이다.
- 소띠**
자신을 지키려면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겠다. 성공을 하려면 자존심이 상한다 하더라도 굴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달면 삼키고 쓰디고 뱉는 것은 배신행위다. 1, 9, 11월생 결단 요망. 짝사랑으로 냉가슴 앓는 격.
- 범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믿었던 사람이 변심할 우려 있다. 진심인지 가식인지 파악하고 마음 졸이다면 상처받을 일은 없을 듯. 1, 7, 11월생은 원치 않는 임신이 우려됨. 합부로 남을 믿지 말고 남자를 조심함이 좋을 듯. 한 번 실패에 만족하라.
- 토끼띠**
진행하는 일 모두 순조롭게 이뤄지는 호운이다. 아랫사람을 소중하게 다스릴 것이며 겸손한 태도가 요구된다. 지금 하는 일 변통 가능. 사랑하는 이의 힘이 필요할 때. 의심 말고 잡아라. 여러 사람 모이는 곳에 갔다가 구설로 시비가 있을 듯하니 주의.
- 용띠**
맘 풀린 보람으로 소망이 성취될 운이다. 대인관계에도 겸손하게 신중을 기해야겠다. 4, 6, 12월생은 모든 일을 한 가지만 택해 처신하라. 인간관계는 생각처럼 안 된다. 자에게 신경 쓸 것. 마음이 허락지 않는 외출은 삼가게 좋다.
- 뱀띠**
본수를 모르고 경계망동하다가 관재에 휘말릴 액운이다. 뜬구름은 아무도 잡을 수 없는 법. 순리대로 처신함이 좋을 듯. 돈은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으니 하던 사업 빨리 정리할 것. 한 몸으로 돌을 생각하니 벅하다. 욕심 부리지 말 것.
- 말띠**
묵은 것은 과감히 처리하고 새로운 계획으로 개혁해 나감이 좋을 듯. 이득도 없는데 미련을 두면 손실만 더 많아진다. 순발력있게 결정함이 좋겠고 한 몸으로 한 길만 택하라. 붉은색이 행운 준다. 함께 하자는 사람이 나타난다. 4, 10, 12월생을 잡아라.
- 양띠**
대중이 모이는 곳으로 가지 마라. 누명을 쓸 염려 있다. 늦은 시간 외출을 삼가고 근심함이 좋겠다. 애정으로 서로 의견대립되고 심하면 별거에 들어간다. 미래를 위한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다. ♀, ♂, ♀성세를 잡아 함께하라. 운이 열린다.
- 원숭이띠**
갈 길이 아직 멀었다. 더 분발해야 할 듯. 신념을 굽히지 않고 맡겨진 임무를 다할 때 뜻한 바를 성취한다. 미운 정 있거는 다 버리고 살아라. 닭, 양띠가 내게서 떠나는구나. 실속을 차려가며 미래 지향적인 자세로 대처하라.
- 닭띠**
지나친 자존심을 해를 부른다.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목적을 달성한다. 애정문제는 뒷사람의 조언으로 결정함이 좋을 듯. 4, 9, 10월생 직업변동은 자살행위. 주어진 일에만 전념할 때. 사적인 일에 끼여들면 관계 열려.
- 개띠**
등업자간 충돌이 있겠다. 감정보다도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자제해야 서로가 손실이 없다. 애정은 둘 다 손에 쥐려고 하지 말고 한쪽을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 6, 7, 11월생을 믿지 말고 마음 정리. 자녀 문제로 늘릴 일생길 열려 있으니 관심 가질 것.
- 돼지띠**
무슨 일이든지 침착하게 처리함이 좋을 듯. 동료간에 모함의 우려된다. 언행을 조심하며 친분을 다져야 자신에게 득이 있다. 나 이만 탓하지 말고 주변을 넓게 돌아보라. 배필이 있다. 충동적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기보다는 흐름에 그냥 맡기는 것이 최선.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